

서삼석 “무안군수 공천 개입설 사실 무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6.13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가 최근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영덕 무안군수 후보 추천 취소 개입설과 관련, “전혀 관련없이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2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 본인도 관련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오해했다’고 직접 말한 적

“정영덕 후보 본인도 ‘오해했다’ 말해” 중앙당 지도부도 “지역정치권과 무관”

추천이 무효화됐다고 해 그 탓을 다른 곳에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후보 추천 무효와 중앙당의 공천에 대한 심정은 심분 이해하지만 관련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추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인과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영덕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선 중앙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지역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열린 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앙당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수차례 협의와 숙고 끝에 당헌당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교체했다”면서 “지역정치권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향자 최고위원도 “안타깝지

만 20일 성폭력상담센터에 정 후보의 미투(#Me Too)건이 접수됐고 중앙당에서는 피해자와 전문가 중임당 관계자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심사안건으로 최고위에 상정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 결과 민정일치로 후보자 추천 무효를 결의했다”면서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지하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후보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가면 ‘나쁜 법’을 고치고 ‘좋은 법’을 만들겠다”면서 “농어촌 섬사람들의 ‘병든 권’과 ‘행복추구권’ 확보, 단체장과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영 전 의원의 중도사퇴로 치러지는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는 후보등록 마감 결과, 민주당 서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윤석 의원 등 2명이 맞대결을 펼친다.

“유리천장 깨고 지역민 위한 일 할 것”

장숙희 의원, 순천 시의원 여성후보로 재도전

순천시 서면 왕조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선거꾸’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루어진 지역구 중 인구 5만 2천이 넘는 가장 큰 지역구이다. 주목할 후보는 이 지역구에 여성으로서 야심찬 행보에 나선 현 장숙희 의원이다. 장 의원은 순천에서 초등학교 대학까지 교육을 마치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서 공직을 맡기도 하였으며, 지난 4년간 순천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안전과 복지,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업무를 맡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경험을 통해 얻은 지방의회의 많은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민을 위해 할 일은 꼭 해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장숙희 후보는 공약으로 “어린 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을 비롯 주공차이파트 편의시설 확대, 현대5차 아파트 인구 교통체계 개선, 조례마을과 풍전주유소간 친



환경도로 개설 등 도시지역 현안과, 서면지분 판교간 인도설치, 배드주공1차아파트 주변 도로공사, 정소지구 상수도 확충,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기적의 숲 조성 등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요구사항을 귀담아들어 시책에 반영해나가도록 하며, 올라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고, 지역민을 위해 할 일은 꼭 하겠다”는 신념과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박지원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조사 철저히 받아야”

“박근혜 맞춤형 재판 있을 수 없는 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8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와 법원 내 학술 모임 사찰, 재판을 이용한 청와대의 거래 시도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에 “저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

명한 사람이고 국회 법사위원으로 18·19·20대 국회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다”며 “그런데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MB(이명박)정부에서 조작해 기소한 제 사건(1심 무죄·2심 일부 유죄)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충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세균 “대통령 탄핵,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사건...민심 헤아린 결과”

“개헌안 처리 못해 아쉬워...대결적 정치문화 청산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탄핵은)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난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의정으로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의 복잡한 고처방정식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 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자랑했다. 반면 임기 중 개헌안을 처리하

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 특위를 설치해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며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축적해온 개헌 논의와 새 헌법에 대한 법국민적 요구와 열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서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이제 의장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했다.

“TV토론 좀 합시다” 야 3당 전남지사 후보들 공동성명 “후보자 도리”

야 3당 전남지사 후보들은 28일 방송사에 TV토론 개최를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태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민주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 4년을 책임질 각오로 선거에 나선 만큼 선관위 주최 토론회 외에도 TV공개 정책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도민들에게 검증, 평가받는 것이 후

보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측에게는 TV토론회에 대해 본선 거를 코앞에 두고 계속 논의중이라고만 답변을 하신데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TV토론회 참석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힌다”고 말했다.